

< 제 11 장 >

요 11:1-45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1.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제자들의 신앙.

- 나사로(Lazarus) :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였고 제자들에게 ‘우리의 친구’라고 불릴 만큼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보아 두 누이와 함께 신앙이 돈독한 자인 것 같다.

- 마르다(Martha) / 마리아(Maria)

‘27절 주는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 (긍정적 신앙)

‘21.32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부정적 신앙)

‘39절 죽은 자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부정적 신앙)

- 제자들 :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고는 있지만,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랍비’였던 것이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 (눅10:38-42 참고)

① 마르다

- 눅10:40 “**준비하는 일**”(διακονία 디아코니아) : 봉사. 직분. 섬김. 집사의 의무.

(바울서신에서 많이 사용되나 복음서에서는 눅10:40 사용)

- 눅10:41 “~염려하고(μεριμνάω 메림나오), 근심하나(θορυβάζω 도뤼바조)”

언제 다할까 염려하여 바쁘게 서두르는 것.

② 마리아

- 눅10:42 “**이 좋은 편**(μερίς 메리스 : 몫. 분깃. 본인이 좋아 하는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ἀφαιρέω 아파이레오 : 포기하지 아니함)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섬기는 것’을 택하였고, 마리아는 ‘말씀’을 택하였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것이었다.

※ **요12:3**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오라비를 살려주신 은혜와 더불어 그동안 주님께 들은 말씀에 의한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 샘을 하지 않는다.

2.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이유.

요 11:4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유대인과 믿지 않던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게 한 것이 영광을 받은 것이다.

3. 왜 죽은 후에 가셨는가?

11:15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로(제자들)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는 것.

11:42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12:11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어떤 것이 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나사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일차적인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었다.

11:41절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23절** ~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신실한 종들의 선포(kara)에는 책임을 져 주신다. (응답)

<성경에서 믿음의 의미>

- **πίστις** (피스티스 Faith) : 신뢰. 확신. 신념적인 믿음.

Faith : 인간의 운명을 control하는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강한 믿음.

- **πίστος** (피스토스 Trust) : 맡기다. 신뢰함. 피스티스의 과거형. (현재진행형)

하나님의 신뢰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야 한다.

어떤 사람이 지니고 있는 능력에 의지하거나 의탁하는 것.

Faith(신뢰)에 의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 **πίστεύω** (피스튜오 Believe) :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신뢰함으로(Faith) 자신을 맡기고(Trust) 맡긴 대상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Believe)=**순종**

믿음은 신뢰로부터(Faith) 시작되어 행하는 믿음으로(Believe) 나타내져야 한다.

온전한 믿음(Believe)은 ‘피스티스’의 신뢰가 계속 되어지는 ‘피스토스’ 안에서 이루어진다.

신뢰가 중요한 것은 신뢰하지 않고도 내 믿음, 내 생각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앙에 대한 믿음은 신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순종인 ‘Believe’이다.

신뢰함으로 자신을 맡기고, 맡긴 대상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순종이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참 믿음>이다.

본문에서 제자들과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믿음’(Believe)은 그들이 이미 신뢰함으로 참 믿음을 심어 주시기 위한 것이었으며, 유대인들의 ‘믿음’(Believe)은 신뢰 없이 마음으로 믿는 일반적인 믿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반적인 믿음(Believe)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Faith)하도록 하신다.

(**롬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Believe)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의 응답>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Yes, No, Waiting”이다.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응답하신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유익을 위하여 나의 필요를 간구하였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에 ‘Yes’라는 응답을 하셨던 것이고, 그 응답은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어야 한다.

기도의 응답 중에 가장 많은 것이 ‘Waiting’일 것이다.

‘Waiting’이라면 때가 아니었거나 혹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며, 더나가 우리들에게 믿음의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이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도 이틀이나 지체하셨고, 도착하셨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사일이 지난 후였다. 만약 바로 가서 고쳐 주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함께한 제자들도 주님의 큰 권능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병든 자를 고친 것과 죽은 자를 살린 것, 어떠한 것이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이며,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었는가?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청을 무시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기를 위하여 즉각적으로 응답치 않으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그 세대와 온 역사 앞에 증거한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 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No"라고도 응답하시며 또한 기다리게도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제일 합당하실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심을 믿어야 한다.

요 11:47-48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 하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목도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다.